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햇볕 쬔 날

제목 : 친구사이의 분열

내 이름은 박민채. 평범한 6학년. 난 친구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파가 많이 갈린다. 난 평소 일요일 같은데 운동을 갔다온 후 점심을 먹고 우리 4층사 (주희, 민정, 예인, 나)끼리 놀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인이는 미국에 가버렸고, 예인이의 빈자리에 (고)민정이 들어 오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우리 원멤버였던 (귀)민정은 (고)민정에게 붙어다니기 시작했고, (고)민정하고, 주희 사이에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사이가 안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귀)민정은 주희와 나를 배신하고, 요즘에는 (고)민정 끝을 떠날 줄 모른다. 쭈쭈 또, 주희와 (고)민정은 서로 욕까지 하며 싸운 것이다.

나는 (고)민정과 주희가 친해지고, (귀)민정은 나와 주희를 좀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다시 친해져서 일기도 쓰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